

2024년 12월 15일(주일) 제1713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림절 (Advent)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영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사야 7장 14-16절)

2024 성탄절 축하 행사

임마누엘찬양대 성탄절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시
교회학교 성탄축하 특별행사 - 22일(주일) 찬양예배 시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먼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찬양대(대장 : 오윤걸 장로)의 성탄절 특별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나의 구주'를 제목으로 지휘 최유현 집사 오르간 안효주 집사 피아노 김양언 집사 타악기 윤주일 안수집사 키보드 장해라

선생 베이스 김상윤 선생 나레이션 박재현 선생이 담당합니다.

다음 주일인 22일에는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성탄축하 특별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대림절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말연시 일정 안내

- 12. 15(주일) 권사회 총회
성탄축하 찬양예배(임마누엘)
- 12. 22(주일) 교구 총회
교육부서 성탄축하 행사
- 12. 24(화) 성탄전야예배(오후 8시)
- 12. 25(수) 성탄새벽예배(5시)(호산나)
성탄감사예배(11시)(임마누엘)
(수요1, 2부 예배는 성탄예배로 대체)
- 12월 중 찬양대 총회
- 12. 29(주) 향존직 은퇴, 통독 시상
교회학교 졸업, 장한 어머니상
특별제직회(예·결산)
- 12. 31(화) 송년음악회(오후 10시 30분)
- 2025년
- 1. 1(수) 송구영신예배
(새벽기도회, 수요1, 2부 예배는 송구영신예배로 대체)
- 1. 5(주) 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공동의회(예·결산)

2025 섬김위원 추가 임명

I. 위원회

예배위원회

주일 2부 예배 : 헌금 신영순

주일 찬양예배 : 안내 김혜령2

찬양위원회

할렐루야찬양대 : B 최재식

베들레헴찬양대 : S 조상환 T 유형석

B 김성용 이기형 장억만

호산나찬양대 : S 백정숙 홍성미 흥예원

MS 정수연

시온찬양대 : 오르간 이경옥

예비오르간 : 김윤지

교육위원회

중등부 : 부감 이진영 / 교사 김정현

사랑부 : 교사 박보경 이난희

신앙강좌부 : 부감 전홍

관리위원회

식당관리부 : 부원 김창곤 임대훈

예전부 : 부원 안미경

교구위원회

2-3 부다락방장 정유선

II. 당회 소속기관 부서 및 행사

의료선교부

부원 : 박은진 양세정 이상현 이승아

이신혜 정영규 정철웅 최복희

(성명수정) 범인선→범민선

살롬대학

교사 : 신모란 신아령

※ 집사 성명 수정

6교구 김경아→강경아 현주희→한주희

사랑부 성극 공연

22일(주일), 603호, 오전 11시

사랑부(부장 : 장창수 안수집사)는 22일(주일)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믿음 소망 사랑' 제목의 성극을 공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 *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 장학헌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익

구유에 누우신 예수

눅 2:1-14



손달익 위임목사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은 그 모습이 초라하다 못해 슬프고 안타깝게 보입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주야로 율법을 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처럼 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거류민과 나그네도 환대하라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중해야 할 인륜인데 고향을 찾아온 젊은 내외가 해산할 곳이 없어 구유에 아기를 누이도록 무관심한 일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냉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들레헴 사

람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방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 그 예언된 탄생 장소라고 알려주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자기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뿐 더 이상의 관심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일이 예수 탄생이었습니다.

1. 고난의 땅에 오시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BC31-AD14까지 재위한 로마의 첫 황제였습니다.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였던 그는 BC31년 악티움 해전에서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를 격퇴한 후 로마의 공화정을 폐지하고 첫 황제가 되어 로마 제국의 새 역사의 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토라는 이름은 '가장 높은 자, 신성한 자 또는 존엄한 자'를 의미합니다. 신성한 자의 칭호를 얻은 그는 스스로를 신격화했고 백성들에게 무한의 복종과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며 야만인 취급을 하던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아우구스토에 의해 내려진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은 온 천하가 로마의 압제와 그릇된 종교와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전체가 이와 같이 깊은 흑암에 잠겨 있었을 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찬란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와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잃었고 세상은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신으로 부르며 군림한 시기였습니다. 모든 어두움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법인데 세상의 어두움은 사라질 줄 모르면서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역사이고, 무한하신 분이 세상의 시공 속으로 사람 되어 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어두움의 마귀 권세는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인간 역사가 가장 큰 고난과 절망에 신음하던 때에 세상을 구원하실 생명의 말씀이며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 베들레헴 구유에 나시다

베들레헴은 구약 역사에서 중요한 무대로 여러 차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시골의 한 촌락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마을이 호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자 묵을 곳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해산하고 '아기를 구유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메시아 생애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외면, 냉정, 가난, 무관심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일생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눅 9:58)는 말씀처럼 평생을 가난과 자기 비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탄은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의 시작이었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성탄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신 것이며 죽음을 위해 세상에 오신 가슴 아픈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 삶을 시작하신 것은 삶의 영광이 땅 위의 명예와 부귀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인생의 승리가 세상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며 포기하고 내려놓음이 인생의 면류관이며 죽는 것이 사는 것이며 지는 것이 승리임을 보여줍니다. 낮아짐이 나 내려놓음이 수많은 상처를 내게 남길 수 있지만 자발적 가난과 내려놓

음은 고통스럽고 버려진 자들의 삶을 넉넉히 이해하고 돕는 성숙한 사랑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약한 자로 오시고 버려진 구유로 오셨고, 쉬운 시험 중에 일생을 사셨고, 그 시험을 겪으셨기에 시험당하는 자들을 아시고 도우심으로 그는 모든 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낮아지고 비우고 약한 자가 되고 고난을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대립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누추하고 남루하기 그지없는 구유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슴 치고 회개하며 높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엎드려 구유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역사이고
무한하신 분이
세상의 시공 속으로
사람 되어 오신 일이었습니다.

3.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탄생하신 이 역설적 사실에 대하여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학자 Bengel은 이를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 온 이스라엘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둘째는 예수 탄생의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탄생하신 성자의 성육신과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고 인류 구원의 대망이 성취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들 사이의 모든 평화가 화목제를 되시려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성취될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우리 죄가 사함 받게 된 소식이며, 영생을 얻게 된 소식이며, 갈등과 전쟁과 억압으로 가득한 세상에 평화와 화해와 사랑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진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은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손바닥 크기의 구름으로 큰 비를 예고하시듯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통해 온 인류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현실의 구체적 역사가 되게 하신 일이 성탄 역사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분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심으로 세상에 구원과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는 노래하고 땅의 목자들은 달려가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 정신은 겸손, 자기 비움, 자발적 가난, 희생, 사랑, 평화입니다.



임마누엘찬양대



오윤걸 장로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날을 감사하며 칸타타로 성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가 노래하고 땅의 모든 것들이 기뻐 경배하고 찬

송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메시아가 맞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시며 십자가, 골고다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칸타타를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은 뒤로 한 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사용 하기에만 급급한 세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리는 한없이 아름답고 밝게 빛나고 있는데 캐롤은 사라지고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흔적조차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귀한 선물, 사랑의 선물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캐롤을 부르며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온 세상에 퍼지고 용서와 화해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부 성탄절 성극



사랑과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대림절, 사랑부(부장 : 장창수 안수집사에서는 성탄주일인 22일에 아기 예수님께 올릴 창작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번 창작극은 사랑부 학생 오성일 군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모태신앙인인 주인공 재원이 교회만 가면 즐기만 하다가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 내용입니다.

원작자 오성일 학생은 부회장으로 사랑부를 섬기며 사랑부 친구들이 노력하는 만큼 교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이번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부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연극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동행하며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을 위해 청년부에서 연

기 지도로 지원 나오신 박재현 자매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번 연극을 사랑부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며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제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됨을 느낍니다. 사랑부 친구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며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 김남희, 남단비, 소성일, 김은선, 김동선, 공성광, 송재원 학생 그리고 찬양 게스트 이준석 학생의 열연과 열창은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이 사랑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허숙 권사(편집부)

33강 : 세례(2)

72문 :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 :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세례에 사용되는 물 자체가 영혼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

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외적인 표지가 세례입니다. 물 자체에 죄를 없애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 :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써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죄가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 죄를 씻겨내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 의례로서 세례는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 물이 뿌려지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가시

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죄인이 의인이 되었음을, 죄인이 의인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알리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74문 :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 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은 성경 해석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에서 있었던 재세례파의 논리는 세례 전에 반드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지성과 의지를 갖춘 성인이 교리에 대해 지적인 동의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이들의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이 발달되지 않은 장애인들과 유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과 의례로서의 세례는 ‘입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또는 부모가 아이를 신앙인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로 할례를 시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지로 유아세례를 시행합니다.

정리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하셨으며, 승천하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말씀이 구체적인 세례 제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으로 죄가 씻겨지고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물로 씻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것임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의미는 통과 의례로서 세례가 갖는 ‘분리-전환-입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을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라고 주장한다면 유아들이나 지적장애인들은 지성의 활동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교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에 그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신앙을 이성이나 지성의 활동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결혼합니다



- 한수만 군 · 김에림 양
(김영호 · 서향정 러시아선교사 차녀)
12월 21일(토)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연합웨딩홀 3층 아가페홀



- 박정준 군 · 송지혜 양
(9교구 송인수 안수집사 · 고 박한옥 집사 차녀)
12월 21일(토) 오후 3시 30분
해군호텔 W웨딩홀 본관 2층 노블레스홀

식사 제공



- 3교구
전광영 은퇴안수집사, 김인숙 은퇴권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국내 전사회를 열며)

성도 동정

- 현종필 목사는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동서울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셨습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허정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지하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12월16일	월	벧후 1-3	대하18	계7	숙3	요6
12월17일	화	요일 1-5	대하19,2	계8	숙4	요7
12월18일	수	요이, 요삼, 유	대하21	계9	숙5	요8
12월19일	목	계 1-6	대하22,23	계10	숙6	요9
12월20일	금	계 7-12	대하24	계11	숙7	요10
12월21일	토	계 13-17	대하25	계12	숙8	요11
12월22일	주일	계 18-22	대하26	계13	숙9	요12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림절 셋째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신 주님을 깊이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 서울교회가 사랑과 섬김, 나눔과 구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4대 위임목사 청빙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인도하소서.
3.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최종국 황하은
- ◇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 ◇ 준전임전도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혜 조하영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임우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